

2024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819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4년 5월 27일
4.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II.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안이유

-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7조 2,990억 8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5조 7,880억 5천 2백만원에
 대비하여 3.3%(1조 5,110억 3천 2백만원) 증가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조 2,052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1조 1,434억 7천 8백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조 938억 4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675억 5천 3백만원) 증가함.

<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47,299,084	45,788,052	1,511,031	3.3
일 반 회 계	34,205,240	33,061,762	1,143,478	3.4
특 별 회 계	13,093,844	12,726,290	367,553	2.8

3.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 2024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75억 5백만원에서 1억 4천 2백만원($\Delta 0.04\%$) 감소한 3,473억 6천 3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천 2백만원($\Delta 0.04\%$)이 감액된 3,413억 5천만원이 편성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60억 1천 3백만원임.

< 2024년도 경제정책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347,363	347,505	$\Delta 142$	$\Delta 0.04$
일반회계	341,350	341,492	$\Delta 142$	$\Delta 0.04$
도시개발특별회계	6,013	6,013	-	-

(2) 세출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91억 8천 1백만원에서 105억 2천 7백만원(1.6%) 증가한 6,497억 8백만원임.

<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649,708	639,181	10,527	1.6
행정운영경비	1,689	1,677	12	0.7
재무활동	35,661	35,661	-	-
사업비	612,358	601,843	10,515	1.7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5억 2천 7백만원(1.8%) 증가한 6,008억 8천 7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488억 2천만원이 각각 편성됨.

< 경제정책실 소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649,708	639,181	10,527	1.6
일 반 회 계	600,887	590,360	10,527	1.8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48,820	48,820	-	-

- 주요 추경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응하고자 개최된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 (2024.4.30.) 결과를 반영하여 47억 7천 5백만원을 증액함.
 - 서울영화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시설비 55억 5천 8백만원을 증액함.
 -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 국비매칭액 편성, 세운지구 정비사업 관련 인쇄산업 후속조치 등을 위해 2억 9천 4백만원을 증액함.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에 따라 지출 필요성이 없어진 서울글로벌 창업인재허브의 임대공간 원상복구비용 1억원을 감액함.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당초 2024년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2023년보다 다소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4년 상반기 들어 IMF¹⁾와 OECD²⁾ 등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세 등을 반영하여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함.
- 또한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역시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의 지속과 하반기 내수 회복 등을 이유로 소폭 상향함.

〈 주요 기관의 국내 성장률 전망 현황 〉

(단위 : %)

구 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회예산정책처	OECD	IMF
당초	2.1	2.2	2.2	2.0	2.2	2.2
수정	2.5	2.6	2.6	2.2	2.6	2.3

- 이처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거시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 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와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1) 2023년 10월 예측 : 2.9% → 2024년 4월 예측 : 3.2%

2) 2023년 11월 예측 : 2.9% → 2024년 5월 예측 : 3.1%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민생경제·동행, 안전, 매력 등의 중점투자 분야에 5,592억원을 투입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조 5,110억원이 증액(3.3%)된 47조 2,9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2024년도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

(단위 : 억원)

민 생 경 제 · 동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1,051억원 ▶ 시민 생활 지원 확대 : 1,157억원 ▶ 취약계층 보호 강화 : 1,474억원 	3,682
안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방대책, 도시 인프라 재투자 등 	1,137
매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투자 등 	773

2.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세 입

- 2024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4천 2백만원이(△0.04%) 감액된 3,473억 6천 3백만원이 편성됨.

<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347,363	347,505	△142	
일반회계	341,350	341,492	△142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001	142	△142	전년도 결산액 반영 - 일자리정책과 △142
도시개발특별회계	6,013	6,013	-	

- 이 중 일반회계는 3,413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천 2백만원이 감액(△0.04%)됨.
 - 주요 감액 내역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천 2백만원이 감액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0억 1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 참고로 경제정책실의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1,704억 5천만원 규모³⁾로 편성된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수입(매각사업수입)의 매각공고가 무응찰로 유찰됨(2024.5.28.)에 따라 매각대금의 연내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한 상황임.

3) 총 매각예정액 8,365억원의 1회차 분할 매각액

나. 세 출

- 2024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6,497억 8백만원으로, 11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105억 2천 7백만원(1.6%)이 증액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경제정책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4%임.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이 신설되면서 매칭비용인 1억 5천만원이 순증됨.
- 또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10억원), 수출보험(보증)료 지원(10억원),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5억원),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1억원),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55억 5천 8백만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21억 7천 5백만원) 등 9개 사업에서 104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됨.
- 그리고 서울글로벌창업인재허브 운영에서 1억원이 감액됨.

<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경제정책실 합계		(x8,885) 649,708	(x8,885) 639,181	10,527	
추가경정예산사업 계		22,922	12,394	10,527	
경제 정책 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2,500	1,500	1,000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2,500	1,500	1,000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기본경비	398	386	12	▪'24.7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 반영
일자 리 정책 과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1,322	821	500	▪중장년 이직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 한 사업비 증액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창정 책 업 과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840	740	100	▪첨단분야 스타트업 기술사업화를 위 한 기술이전, 기술컨설팅 확대
	서울글로벌창업 인재허브 운영	150	250	△100	▪불용 예산 원상복구비용 감액
창 산 업 조 과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6,219	660	5,558	▪서울영화센터 건립 공사비
뷰 티 패 션 업 과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 (국)직접지원	150	-	150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 선 정에 따른 운영비 신규편성
	도시재조업 작업환경개선	6,695	4,520	2,175	▪민생대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소공 인 작업환경개선 지원 확대
산 업 지 과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1,444	1,389	55	▪세운지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인 쇄업체 업종 등 사업체 운영현황 및 시설 입주수요 전수조사 용역
	서울인쇄센터 운영	704	627	77	▪고장, 성능저하 등 노후화된 공동이 용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므로4),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

요건	세부내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한시성	추경안에 편성되는 재정사업이 한시적 재정사업일 것

4)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후단 생략)

- 이번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 서울영화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국비 매칭 등 필수경비 확보 등을 위한 증액과 시행 필요성이 떨어진 사업에 대한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함.
- 이번 추경안의 세출감액은 서울글로벌창업인재허브 입주건물주의 재계약 불가 통보에 따른 시설운영종료(2023.12.31.)의 후속조치 중에 원상복구비용을 임대비·관리비 등으로 상계하기로 합의되면서 종전에 시설비에 편성되었으나 추가적인 지출의 필요성이 없어진 원상복구 비용을 감액한 것으로 타당한 예산조치임.
- 그러나 이번 추경안으로 편성된 증액 사업 중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등은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반영할 여지가 있었던 사업으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한시성 등의 추경안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자 하는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을 제외하면 증액 규모가 49억 6천 9백만원에 불과하고, 신규 사업도 국비매칭 사업 1건에 불과하여 “민생경제 회복” 이라는 이번 추경의 편성 취지를 충실히 담아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신규 사업 검토

가.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350쪽)

- 동 사업은 서울시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레전드50+ 지역 특화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매칭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1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됨.

<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	-	150

- ‘레전드(Region+end)⁵⁾ 50+’ 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사업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정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하여 혁신바우처⁶⁾, 창업중심대학⁷⁾, 스마트제조혁신 지원⁸⁾,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⁹⁾ 등을 3년간 (2024~2026)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35개 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안받아 올해 1월에 21개 프로젝트¹⁰⁾를 선정하였음.

5) 지역을 뜻하는 리전(Region)과 종결(끝)의 의미를 지닌 엔드(end)의 합성어로서 지역특화 사업 (프로젝트)을 통해 지역기업 육성, 지역의 현안과 미래 먹거리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의미

6)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 등 3개 분야 14개 서비스 바우처 지원

7) 창업중심대학 중심으로 한 창업사업화 자금 및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8)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설비 및 구축 컨설팅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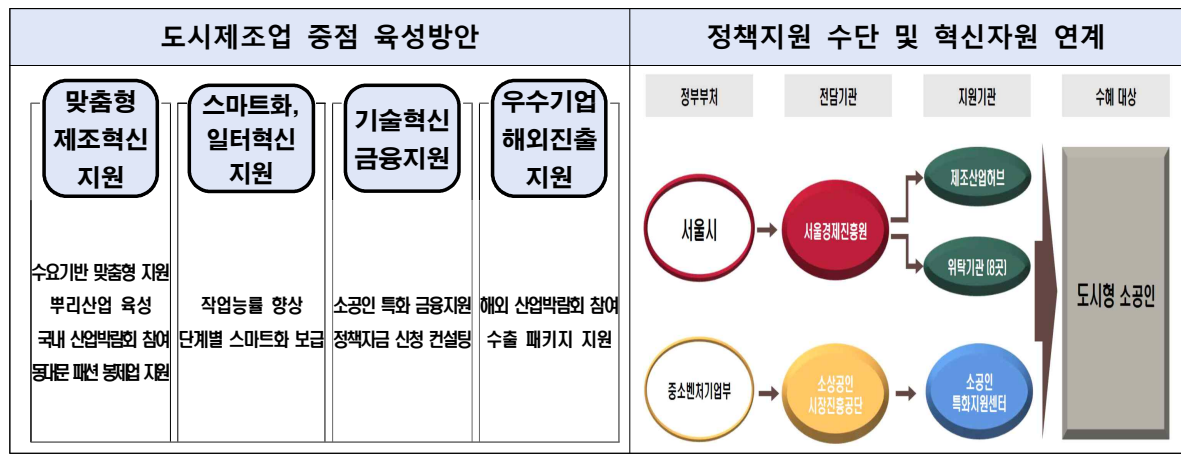
9)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특허 등 기술지원 및 디자인·브랜드 개선, 상품기획 등 사업화지원

10) 광주, 경기, 충북, 경남은 각각 2개 프로젝트가 선정됨.

- 서울시는 의류·주얼리·수제화 등의 패션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프로젝트로 기획하였으며 도시제조업 지원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서울경제진흥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패션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조혁신, 스마트화·일터혁신, 기술혁신 금융, 우수기업 해외진출 등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 패션제조업의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개요 >

- 사업내용 : 스마트화, 금융, 수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심 내 집적된 패션제조업(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등)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구축
- 전담기관 : 서울경제진흥원
- 지원대상 : 도시제조업 중 패션제조업(의류제조, 주얼리, 수제화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000여개
- 추진전략 및 정책수단 연계방안



- 이번 추경에서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및 참여기업 심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 중 1억 5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 비용¹¹⁾이라는 점에서 추경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됨.

11)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50% 비율로 매칭하지만 국비는 서울시를 거치지 않고 사업전담기관인 서울 경제진흥원으로 직접 지출됨.

- 다만 기존에 서울시가 시행하던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패션제조업 관련 유관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관련 사업내용	2024년 사업예산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 세계 4대 패션위크 진출 지원 - 해외 수주전시회 및 면세점 전용관 운영 등을 통한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700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	- 작업환경개선사업 - 의류제조업 등 실태조사 및 성과 관리 용역	4,520
도시제조업 지원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 - 소공인집적지구 지정 지원사업	2,034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 스마트앵커 및 스마트솔루션 앵커 운영	6,689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	- 주얼리지원센터 운영 등	1,620
서울제조산업허브 운영	-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4,535
뷰티 패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834
서울패션로드 운영	- 도심 내 패션쇼 개최	1,100
서울패션위크 개최	- 국내외 판로개척, 홍보 등을 위한 패션쇼 개최	5,459
서울패션허브 운영	- 패션 관련 창업 및 교육시설, 공용장비 운영	7,948
하이서울쇼룸 운영	- 동대문 패션브랜드 양성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쇼룸 운영	1,437

* 이번 추경안에 21억 7천 5백만원 증액안이 제출됨.

4. 주요 사업 검토

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설명서 327쪽)

- 동 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부도와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10억원(66.7%)이 증액된 25억원이 편성됨.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	1,500	1,000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¹²⁾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임.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개요 >

- 운영기관 : 신용보증기금
- 가입대상
 - 보험계약자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구매기업 : 보험계약자가 거래하는 모든 기업(대기업 포함, 정부 및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공공기관, 해외소재기업 등 제외)
 - 보장대상 : 보험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채권(가입 이후 발생분만 보장)
- 가입 한도
 - 보험계약자 : 100억원
 - 구매기업 : 중소기업 70억원, 그 외의 기업 150억원
- 보장 한도 : 외상거래 후 구매기업의 외상대금 미지급 시 미수금의 80%
- 보험기간 및 보험료 : 1년, 구매기업과의 1년간 거래예상 매출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
 - ※ 보험료율은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0.1%~5%, 평균 0.27%)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 서울시는 2022년 제1회 추경부터 동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며¹³⁾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지원조건에 맞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5백만원 한도)를 서울시가 지급한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사업 구조임.
- 2024년도 당초예산에는 1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7~8월 중에 사업비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1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2022년 사업 신설 이후 매년 추경을 통한 증액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 추경에서 20억원, 2023년 추경에서 10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전액 집행되었던 결과를 고려한다면 그동안 서울시가 추경 증액을 전제로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시에는 적정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설명서 330쪽)

- 동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무역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수출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13) 2022년 이전에는 2020년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수출지원자금(5억원)을 활용해 150개 제조·서비스 분야 기업에 매출채권 보험료(최대 500만원)를 지원한 바 있음.

추경에서는 10억원(66.7%)이 증액된 25억원이 편성됨.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	1,500	1,000

-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수입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의 일부를 ‘한국무역보험공사’¹⁴⁾가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임.
- 서울시는 2009년부터 동 사업을 시행했으며, 서울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지원조건에 맞는 서울 소재 수출기업이 수출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업당 연간 3백만원 한도까지 보험료를 지원 하는 사업 구조임.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 서울소재 중소기업
 ※ 2024년 당초예산 편성시 3,000만 달러 이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확대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3백만원 한도
- 지원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 대행
- 지원내용 : 총 13종(수출보험 6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 수출보험 : 단기수출, 단기수출 다이렉트, 중소Plus+, 중소Plus+ 다이렉트, 서비스종합, 단체
 - 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선적전 다이렉트,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NEGO *
 - 환변동보험

* Negotiation of shipping documents : 선적서류 매입(수출업자가 은행에 신용장과 수출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절차)

14)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정부출연기관)

- 2024년도 본예산에는 1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6월15)까지 사업비의 71%(10억 6천 9백만원)가 집행되어 하반기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1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비의 증액편성은 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 역시 전년도에 20억원이 편성(최종예산 기준)되어 모두 집행되었으나 2024년도 본예산에는 그보다 적은 15억원만 편성하여 추경을 통해 증액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추경 증액을 전제로 본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비정상적인 재정운용행태라고 사료됨.

다.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설명서 333쪽)

- 동 사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서울일자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5억원 (60.8%)이 증액된 13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됨.

15) 2024.6.2. 기준.

<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합계	1,322	822	500
사무관리비	840	340	500
공공운영비	481	481	-
공무원교육여비	1	1	-

-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울일자리센터와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구인 기업 개발, 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교육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4년에는 서울일자리센터 임차료, 취업지원 사업비 등을 위해 8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일자리센터를 활용한 기초·실무 교육,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중장년 500여명에게 이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한 것임.

< 중장년 이직 통합서비스 사업개요 >

- 추진근거 :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2024.4.30.) 후속 조치
- 사업기간 : 2024.7. ~ 2025.6.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40 ~ 59세 중장년
- 사업목표 : 중장년 500명 선발·교육, 취업률 40%
- 추진내용
 - 전문경력 유지 및 이직 희망 중견·중소기업 중장년의 경력진단
 - 실무교육, 1:1 취업 컨설팅 등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취업연계
 - [기초교육] 눈높이 낮추기, 인식 전환, 직무 기초 및 트렌드 교육 등
 - [실무교육] 프로젝트, 케이스 스터디 등 실무현장 사례 문제해결 및 코칭
 - [취업컨설팅] 1:1 경력 분석 및 코칭, 자소서 첨삭, 멘토링 등
- 추진체계 : (서울시) 홍보, 모집, 기초 소양교육, 실무 직무교육
 (일자리센터) 경력진단, 취업교육 및 취업컨설팅, 기업매칭
 (50+ 재단) 참여자 모집 협력, 사업 홍보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인건비 150백만원
 - 사업비(강사비, 컨설팅비, 박람회, 홍보비 등) 350백만원

- 당초 중장년 이직 통합서비스는 국비매칭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6)의 세부사업17)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고용노동부)의 2024년 공모(2024.1.)에서 서울시가 선정되지 못하면서 추진이 어려워짐18).
-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평균퇴직연령의 하향, 비자발적 조기퇴직의 증가 등19)으로 인해 중장년 이직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임.
-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의 이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의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장년 이직 통합서비스와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는 그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무관한바20),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16) 정부사업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7)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비 중 서울 중장년 재도약 프로젝트(3억원)

18) 정부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예산을 전년대비 185억원 감액(2023년 : 294억원 → 2024년 : 109억원)하고, 참여 시·도를 17개에서 9개로 축소함에 따라 미선정

19) 평균퇴직연령(통계청, 2022) : 53세('12년) → 49.3세('22년), 비자발적 조기퇴직(통계청, 2021) : 41.3%, 정년퇴직 9.6%

20)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는 서울일자리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함.

- 한편 당초 예산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중장년 이직 통합서비스 운영’ 관련 예산(3억원)은 정부 공모에서 미선정됨에 따라 사실상 불용이 예상²¹⁾되므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의 감액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정부공모 사업의 선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울시 예산에 선반영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임.

라.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337쪽)

- 동 사업은 첨단업종 우수기업이 국내외 경쟁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1억원(13.5%)이 증액된 8억 4천만원이 편성됨.

<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 간 위 탁 금	840	740	100

- 서울시는 2012년에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설치하여 창업 7년 미만의 미래 유망첨단기술 분야²²⁾를 대상으로 입주공간, 기술이전 후속 R&D, 글로벌 진출, 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음.

21) 정부 예산의 매칭비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용이나 변경이 어려우며 연도 내 재차 추경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불가피함.

22) ICT, BT, ET, NT, 융복합기술, 소재부품 등

< 서울창업성장센터 개요 >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14길 5(KIST 內)
- 운영방법 : 민간위탁(한국기술벤처재단)
- 운영프로그램 및 서비스
 - 엑셀러레이팅 : 기술창업스카우터 지원사업, 사업화 유망 기술 이전 지원,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국내시장 및 상품조사, M&A지원 프로그램
 - 교육 : 기술사업화 전문교육, 투자유치 전문교육
 - 멘토링/컨설팅 : 투자유치 멘토링, 기술사업화 컨설팅
 - 창업행사/네트워킹 : 기술멘토링 매칭데이 개최
 - 입주공간 지원

- 입주기간 : 기본 1년, 최대 2년(1년 연장심사), 매년 12월 모집
- 입주대상 : 미래유망첨단기술분야(ICT, BT, ET, NT, 융복합기술, 소재부품 등)
- 지원내용
 - 입주공간(30~88㎡) 무상제공
 - 기술이전후속 R&D 지원(1,500만원/건)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초기단계투자, IR, EXIK M&A, IPO 전략 멘토링 지원 등
 -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 해외 바이어 매칭, 투자유치, 기술협력, 기업가정신 연수 지원
 - 한·중/한·유라시아/한·일 테크노마트 개최 지원
 - 스케일업 프로그램 : 경영진단, 시장조사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원

- 2024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3억 4천만원) 및 운영비(1억 5천 4백만원)와 함께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 스케일업 프로그램, 기술교류 지원을 위한 사업비(2억 4천 6백만원)가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기술 교류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술 컨설팅(50건→200건), 기술이전비(10개사 추가), 기술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후속 R&D(5개사 추가)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임.

< 세부증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본예산		추경예산	
◦ 인건비	= 340	◦ 인건비	= 340
◦ 운영비	= 154	◦ 운영비	= 154
◦ 사업비	= 246	◦ 사업비	= 346
-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	= 36	-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	= 36
· 해외기술교류회 운영	= 10	· 해외기술교류회 운영	= 10
· 글로벌테크노마트 개최비	= 6	· 글로벌테크노마트 개최비	= 6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운영	= 20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운영	= 20
- 스케일업 프로그램	= 50	- 스케일업 프로그램	= 50

(단위 : 백만원)

본예산		추경예산	
- 기술교류 지원	= 160	- 기술교류 지원	= 260
· 기술 컨설팅	= 20	· 기술 컨설팅	= 40
· 기술이전 지원	= 40	· 기술이전 지원	= 70
· 기술이전 후속 R&D지원	= 100	· 기술이전 후속 R&D지원	= 150

- 그러나 기술교류지원 사업은 2023년에도 실적대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면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 바 있고, 2024년도 본예산 제출시에는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조정한다는 이유로 전년도보다 감액(△4천 9백만원) 편성되었는바,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의 증액은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을 과도하게 축소 편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추경편성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음.

마.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설명서, 345쪽)

- 동 사업은 서울의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영상도시 서울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상문화복합공간인 ‘서울영화센터’를 건립·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55억 5천 8백만원이 증액(841.6%)된 62억 1천 9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 산(안)	기 정 예 산	증 감
합 계	6,219	661	5,558
시 설 비	5,782	523	5,259
감 리 비	434	137	296
시 설 부 대 비	3	0	3

- 서울시는 독립·예술영화 전문 상영관과 아카이브 등의 영상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영화계의 요청에 따라 2020년부터 서울영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음.
- 서울영화센터는 당초 2024년 12월까지 건립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시설 명칭, 층별 공간용도, 상영관별 용도 및 좌석 구조 등이 변경되고 총 공사비가 증액(62.2%)²³⁾되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는 161억 2천 8백만원이 편성·제출된바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동일한 시기인 제321회 정례회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²⁴⁾를 받았으나 서울영화센터 건립부지의 소유 및 관리 주체 일원화가 요구되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바, 20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중 공사장 관리비용(6억 6천 1백만원)을 제외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됨.
- 이후 서울시는 중구청과 협의하여 서울영화센터 부지와 서울시 중구 내 서울시 소유 5개 필지 간 토지교환 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지의 소유 및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음²⁵⁾.

23) (당초)224억 6천 4백만원 → (변경)364억 5천 2백만원(139억 8천 8백만원 증가)

24)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그리고 서울시는 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에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현재 심의(2024.6.14.)를 앞두고 있음.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중구청과의 부지협약에 관한 협약서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사업상 보완이 이뤄졌고, 2023년 사고이월액(69억원)과 2024년 기정예산(6억 6천 1백만원)이 올해 9월 중 소진될 예정이므로 서울영화센터의 지속적인 공정을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우선 의결 받아 확정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와 동일한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영화센터 건립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별설명서 353쪽)

- 동 사업은 영세하고 낙후된 5대 특화업종²⁶⁾의 작업현장에서 근무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21억 7천 5백만원(48.1%)이 증액된 66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됨.

25) 2024.5.9.(목), ‘공유재산과 소유의 이원화 문제(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 사유)’ 보완

26)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	계	6,695	4,520	2,175
	사무관리비	625	450	175
	자치단체자본보조	6,070	4,070	2,000

- 서울시는 2012년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서울시 소재 5대 업종의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환경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미세분진 발생 등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대 업종(1,000개사)
- 소요예산 : 4,520백만원
 - 생산환경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사무관리비) : 450백만원
 - 5대 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4,070백만원
- 추진방법 : 자치구 및 운영기관 공모, 사업비 매칭 지원
 - 의류봉제 업종 :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 그 외 4대 업종 : 시비 90%, 자부담 10%

- 이번 추경에서는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 에서 제출된 지원확대 방안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보다 500개 업체를 추가지원(1,000개→1,500개) 하고자 사무관리비(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비용) 1억 7천 5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5대 업종 작업환경 개선지원 비용) 20억원이 증액됨.
- 서울시 5대 특화업종은 지역내 협·분업을 통해 전국 최대의 도심 제조업 집적지를 형성할 만큼 규모가 크고, 소규모 창업과 서민형

일자리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산업인 만큼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그러나 이번 추경 증액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지원실적 보다 하향된 1,000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하면서 예산을 과소편성한 것이 원인으로, 동 사업의 추경 편성은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사.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사업별설명서 357쪽)

- 동 사업은 DMC 등 산업 클러스터, 특정개발 진흥지구, 산업단지 및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 등 서울의 주요 산업거점을 조성 및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5천 5백만원(3.9%)이 증액된 14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됨.

<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 계	1,444	1,389	55
사 무 관 리 비	197	142	55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7	7	-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000	1,00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	40	-
시 설 비	200	200	-

- 동 사업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운영,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운영, DMC관리자문단 운영,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자치구

보조금 지원, DMC홍보관 부지매각,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 관련 홍보 등을 위해 편성된 것임.

- 이번 추경에서는 세운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소재한 인쇄산업체의 재정착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한 것임.
- 당초 서울시는 총무로 4, 5가 일대를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2017.7.13.) 했으며 중구청이 진흥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상정을 의뢰했으나 1차 의뢰(2018.6.18.)는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보완²⁷⁾을 위해, 2차 의뢰(2021.4.)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소집되지 못하면서 승인되지 못했음.
- 이후 2022년부터 서울시는 도심권역 내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대해 종전의 도시재생 방식을 지양하고,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면서 당초 171개로 분리되어 소규모 개발만 가능하던 세운지구 일대를 39개 내외로 통합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통합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추진·가결함(2024.3.19.).
- 이에 따라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대부분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면서 해당지역에 소재한 인쇄산업체의 이전이 불가피

27) 인쇄 산업의 제조업 형태 유지와 동시에 고도화 방안 등 고민, 앵커시설 외 생태계 공존 방안 고려 등 필요

하게 된바, 이번 추경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용을 증액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시의성은 인정됨.

-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의 방향이 보존과 재생에서 전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계·금속, 주얼리 등의 도심권 내의 다른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역시 지구 지정이 재검토되거나 해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시계획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도심제조업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
이성찬	02-2180-8061